



채란업과 산란계의 쿼타 제도를 중심으로



유 병 현
마니육종 사장

호 주의 산란계 농가는 현재 약 1,600호로 농가당 평균 사육수수는 5,500수 내외이며, 총사육수수는 약 900만수로 1년에 22억개의 달걀을 생산하고, 농가의 총수입액은 약 2억불(1,100억원)에 달한다.

호주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육되어온 계종은 백색레그혼과 호주에서 개발한 흑색 오스트랄로프종의 품종간 교배종인데 달걀 색깔을 낳으며, 차츰 갈색계인 오스트랄로프×뉴햄프셔 교배종이 농가에 보급되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방역상의 이유로 조류의 수입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종계를 국내에

서 개발하고 생산해온 점이 특이하나, 1993년도 중반부터는 엄격한 검역과정을 거쳐서 상륙한 해외의 산란계 종계가 생산단계에 들어가서 실용계가 시판될 예정이다.

호주의 동·식물 검역이 엄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닭의 경우, 아직 뉴캐슬이 발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뉴캐슬 예방접종을 하지않을 만큼 청정지역인 것이다. 최근에 빅토리아주 벤디고지방에서 발생한 인후렌자를 박멸하는데 성공한 것은 호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철저한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생한 인후렌자의 원인이 확인되

지는 않았지만, 야생 수금이 양계장의 수원지를 오염시켰기 때문으로 추정하며, 발병이 확인된 직후 그 인근 25km까지 방역지대를 설정하고 1일 100여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여 조류 13만수와 계란 50만개 이상을 소각 또는 매몰처분하고 수많은 시료의 채취 및 검사로 약 140만불(8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육추, 육성방법이나 사양관리는 다른나라와 비슷하나, 사료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기 때문에 곡류로써 밀과 수수가 주원료가 되고 단백질 급원으로 육분과 육·골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산란계의 90% 이상이 복사 케이지(3수)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현재는 수당 450cm²의 사육밀도이나 1995년부터는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사육표준이 사육표준이 600cm²로 증가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생산비 증가로 인한 고충을 예상하고 있다.

계사는 아직도 대부분이 개방식이며, 환기 및 온도를 윈치커튼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흔하나 일부 환경조절이 용이한 무창계사가 보급되어 있다. 사육수수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NSW와 퀸스랜드 지역은 여름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지붕에는 살수기(스프링쿨러), 천정에는 분무장치를 갖추어서 대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달걀의 생산 및 유통체계에서 특이한 것은 오래전부터 산란계 쿼타제를 실시하여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어 왔다는 점이나, 최근 6개주 중에서 식란 생산량이 가장 많은 NSW주에서 이 쿼타제가 철폐되었다. 이 쿼타제의 철폐에 따른 NSW주의 문제점



은 뒤에 더 언급하겠으며, 우선 쿼타제가 실시되고 있는 주의 식란유통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가에서는 생산된 달걀을 주정부에서 관여하는 식란유통기관에 보내며, 여기서 중량등급에 따라 포장이 끝나면 소매상이나 슈퍼마켓에 공급되어진다. 일부 큰 농가에서는 등급 및 포장을 끝낸 식란을 식란유통기관에 보내어 시판하게 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이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일부 소매상에게 직판하고 나머지는 식란유통기관에 보내기도 한다.

농장에서 보내온 달걀은 표본을 취하여 신선도, 난황색, 난각질, 난백고 등 품질을 측정하며 검등을 한 후에 규격에 맞는 것만 시판하게 된다. 이 측정결과에 따라서는 농가에 달걀대금이 지급된다. 달걀의 중량등급은 주마다 다르며 기호도가 높은 중량등급이 주에 따라 다른 것도 특이하다. 식란유통기관에서는 등급별 수요와 공급을 가격으로 조정하여 균형이 맞도록 하고 있다. NSW주에서만은 달걀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가 최근에 해제되어 이와같은 유통

의 체계가 없이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다. 식
 란유통기관은 주정부법령에 따라 설립한 기
 구로 각 주의 농림부장관 책임하에 있으며
 정부에서 임명하는 생산자, 소비자 및 유통
 전문인의 대표로 구성된다. 또한 산란계 농
 가는 생산자 단체를 구성하여 정부의 교섭
 단체로 정책, 연구, 동물복지 등의 분야에서
 생산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각주의 식란유통기관은 소비자가 언제나
 품질이 우수한 달걀을 공정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생산자는 공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
 록 질서를 잡아주는 유통체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유통체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쿼타 및
 허가로서, 생업을 목적으로 산란계를 사육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허가를 받고 쿼타,
 즉 허가된 산란계수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양계업을 안정시키고, 과잉생산에서 오
 는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쿼타
 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지
 금까지 더 이상 쿼타를 추가로 허가하지 않
 았다. 새로 양계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사육
 규모를 늘리려는 농가는 현 농가에서 쿼타
 를 구입해야 하며, 주에 따라 쿼타와 농장
 을 같이 거래하거나 또는 쿼타만 거래할 수
 있는 차이는 있다.

주에 따라서 식란유통기관의 역할이 약간
 씩 차이가 있으나 이와같은 유통체계의 주
 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가) 수요예측 : 적정한 생산수준을 결정
 하기 위하여 달걀 소비수준을 추정하며, 이
 때 인구분포, 식생활의 변화, 홍보효과, 가
 격, 전반적인 경기, 달걀과 경합되는 식품의

공급 및 가격 등이 고려된다.

(나) 생산조절 : 농가에서 사육할 수 있는
 성계수수를 통제하여 생산조절을 하며, 산
 란생산성, 달걀의 중량 등급별 수요, 계절에
 따른 생산수준등을 고려하여 농가가 소유한
 쿼타를 몇 %까지 이용하도록 허용할 곳인
 지를 결정해 준다.

(다) 판 매 : 소규모의 농가에서는 시
 판에 필요한 시장조사, 광고, 판촉 및 판매
 활동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란
 유통기관에서 생산자를 대신하여 책임지고
 이를 수행한다.

(라) 가격결정 : 이 기관에서 최소 도매가
 격을 결정하며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결정한
 다. 이 도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산비,
 타 주의 가격, 경합되는 식품의 가격, 수출
 소득 및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고려된다. 지
 난 15년간 호주전역의 난가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빵, 우유, 닭고기, 쇠고기 등의
 가격상승보다 월등히 낮았다.

(마) 품질관리 : 신선하고 품질이 높은 달
 걀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이 기관의 중요한 임무의
 일부이다.

(바) 제품개발 :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달
 걀을 소재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사) 수출시장 : 예측한 수요보다 생산이
 과잉되었을 때 이를 수출하여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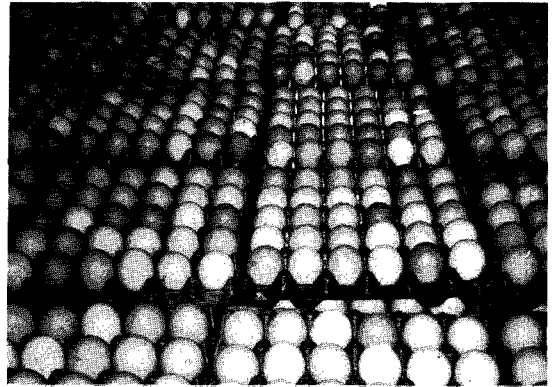
(아) 유통 : 신선한 달걀이 지속적으로
 소매상에게까지 단 시일내에 최상조건으
 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 NSW주에서는 오랫동안 실시해오

던 쿼타제가 철폐되었고, 조만간 남호주에서도 생산규제가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호주 전역에 걸쳐서 산란계 업계가 불안정해 질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NSW주에서 쿼타제가 없어지게 된 이유는 소비자의 정치적인 압력, 즉 시장의 자유경쟁이 억제되어왔기 때문에(생산자는 보호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쿼타제가 철폐된 후 엄청난 과잉생산이 뒤따랐고, 난가가 폭락하여 정치적으로는 소비자의 요구가 충족된 것 같았으나,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어서 식란의 품귀현상에 따라 난가가 급상승하고, 액란을 뉴질랜드에서 처음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수많은 양계가를 파산에 이르게 한 후 양계업은 역사에 없었던 경기불안정의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에서도 쿼타제를 철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주와 주 간에는 자유로운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때문에 식란의 유통이 혼란에 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NSW의 쿼타제가 철폐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쿼타가 성계 1수당 20불(11,000원) 이상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무상으로 쿼타를 받은 농가는 쿼타에 자본금이 투자되지 않았으나, 새로 시작하는 양계장이나 확장된 양계장에서는 쿼타에 투자된 자본금에 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달걀생산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고, 쿼타제로 오랜



기간 생산자의 수입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생산자간의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산란계의 생산성이나 생산의 경제성이 점차 낮아지고, 그 결과 달걀의 생산비가 높아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과연 생산규제에서 풀려나고 있는 호주의 채란계 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할 것인지 그 결과가 양계경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는 가족단위의 양계농가수가 점차 줄어들고 달걀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단체에서 대규모 유통회사나 슈퍼마켓으로 이전됨으로써, 생산자 가격은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은 높아지며 유통 마진이 커지는 결과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반복됨으로써 생산자 뿐만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다.

양계

